



나주배 품종 다변화로 경쟁력 키운다

전국 최대 배 생산지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국내에서 육성한 녹색배 ‘설원’을 새로운 나주배 품종으로 육성한다.

모목 생산부터 재배 기술 보급, 품질관리와 유통까지 기관-농협-농가가 함께 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해 품종 다변화와 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주배원예농협과 함께 국내 육성 품종인 녹색배 ‘설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모목 보급을 넘어 ‘설원’의 안정적인 생산과 시장 정착을 위해 모목 생산부터 재배, 품질관리, 유통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나주시는 ‘설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과 재배 농가 교육, 품질관리 등을 추진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설원’ 품종의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품질 기준을 설정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맡는다.

나주배원예농협은 1년생 포트묘를 자체 생산 및 공급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생산량 증가에 맞춰 유통과 판매를 지원하는 등 생산단지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설원’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내 육성 배 품종으로 과중은 600g 내외, 당도

는 14.0브릭스 내외로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고 저장성이 우수해 상온에서 30일 이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과육의 갈변이 잘되지 않아 조각과일로 활용하기 좋고 학교급식과 가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3ha 규모의 보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0ha 규모로 ‘설원’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배연구센터,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나주배

원예농협, 재배 농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품질관리와 유통 및 판로 확대 등 생산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녹색배 ‘설원’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가 소득 증대와 나주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주배원예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생산단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배 기술 보급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 미래형 스마트축산 기반 ‘ICT 단지’ 활성화 박차

〈정보통신기술〉

입주자 2차 모집…28일까지 미래 이글 청년농업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스마트축산 구현과 고흥 명품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고흥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2차 모집은 기반시설이 조성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내 2214㎡ 규모의 축사를 직접 신축할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1개동의 입주자를 모집

한다.

현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는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일원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지 조성,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미래형 스마트축산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흥군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로, 기존 축산농가,

축산 경력자,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이며, 기존 축산농가는 입주 후 2년 이내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거나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최종 입주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스마트축산 ICT 운영계획, 축산업 운영 역량, 축산업 경력, 고흥군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고흥군 축산정책과(061-830-526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는 미래형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고흥 명품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며 “스마트축산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축산농가와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담양군은 최근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담양영농조합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 가공 베이커리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청

담양, 농산물 가공·부가가치 역량 강화

베이커리 실습…제조공정·상품화 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지역 농산물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에 나섰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담양영농조합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 가공 베이커리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가공 농업인들이 농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교육에는 목포과학대학교 김영모 교수가 강사로 나서 베이커리 제조의 기본 원리부터 품목별 제조공정과 상품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지도했다.

참가자들은 베이킹 기초와 피 반죽을

활용한 베이비만주를 비롯해 발효빵의 원리를 이해하고 성형하는 소금빵, 성형과 제품의 형태·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을 적용한 고구마빵 등을 직접 만들며 가공기술을 익혔다.

단순히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원재료의 특성과 제조 과정에 따른 품질 변화를 이해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까지 실습하면서 농산물을 가공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소규모 가공 농업인들이 다양한 가공기술을 익히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습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사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최근 통합돌봄 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청

영암, 주민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온 힘’

지난해부터 24차례 지원회의…관계기관과 협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복지·보건 분야와 읍·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 지원회의를 지난해부터 24차례 열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달빛청춘마루 대회의실에서 제24차 통합돌봄 지원회의를 열고 대상자 44명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돌봄 욕구 등을 살펴 개인별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통합돌봄 지원회의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보건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결하기 위한 협업 창구다.

영암군은 지난해 10차례에 이어 올해 14차례 등 지금까지 24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지원방안을 살피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통합돌봄추진단과 복지관련 부서, 보건소, 11개 읍·면, 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노인 42명과 장애인 2명 등 44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계획과 기존 서비스의 변경·종결 여부를 논의했다.

신규 대상자 37명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기존 대상자 5명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조정했으며 2명은 서비스 종결 여부를 살폈다.

대상자 발굴에도 지역의 여러 기관과 돌봄 인력이 함께하고 있다.

읍·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관, 장기요양기관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생활지원사 등이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통합돌봄으로 연결한다.

유미경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마다 건강과 생활 여건,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만큼 여러 기관이 함께 살피고 적절한 지원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역에서 먼저 찾아내고,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해남, 착한가격업소 할인 이벤트 진행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시 최대 20% 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고물가·고유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군 소재 착한가격업소에

서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QR로 결제 시 7%가 환급(캐시백)된다.

특히 8월 해남사랑상품권의 기본 구매할인 10%와 기본 환급금 3%까지 더해져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해남군이 가격·위생·결격,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며, 해남군에서는 32개소가 지정돼 있다.

해남군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www.goodprice.go.kr)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널리 알리고 이용과 매출을 늘려 지역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더 많은 업소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곡성, 어린이 건강발걸음 사업 추진

내달 6일까지 10명 모집…고향사랑기부금 연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과 전남대학교는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사업과 연계해 초등학생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제2기 곡성 어린이 건강발걸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곡성 어린이 건강발걸음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아 대사증후군을 예방·완화하고, 성장기 어린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육·영양·심리·정서 분야를 연계해 지원하는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사업을 운영했다.

총 8회에 걸쳐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영양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프로그램 전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도를 병행해 참여 어린이들이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제2기 사업은 1기 운영 결과와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보완·추진된다.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활동과 건강 교육을 운영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9월 6일까지이며, 제2기 모집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중 성별·연령별 BMI(체질량지수)가 85백분위수 이상인 어린이로 최대 1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차별 지정된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곡성레저문화센터와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곡성=김유천 기자 hnnews1@